

대평동마을회^{①②}, 62년의 역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평동마을회의 역사도 62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갑자를 훌쩍 넘긴 세월동안 마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평동마을회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 62년사를 살펴보려 합니다.

대평동마을회의 역사는 마을 소유의 땅을 갖게 된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5년 10월 31일 당시 동장인 허덕영 씨의 주도로 관재청장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을 유지 분들을 설득·호소를 하여 찬조금을 받아 당시 자치운영회 간사인 김영환 씨와 협력하여 1963년 10월 30일 매매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해방 후 남겨진 서본원사(西本願寺) 부지로, 일제가 남긴 땅을 대평동 명의로 불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던 1980년, 불하받았던 땅이 마을회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을 80년 11월 당시 동장이었던 이집윤 현 대평동 노인회장님께서 국세청장으로부터 매도증서를 교부받아 1981년 1월 16일 동개발위원 및 통·반장 100여명의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재산 등기를 위한 규약을 제정^③하고, 마을회 재산권에 대한 이의 유무를 공고하

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영도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1981년 3월 27일 부산지방법원에 대평동민 공동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평동 소유로 등기를 완료한 1981년, 마을 공식 대표 기구인 대평동마을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마을공동재산이 밀바탕이 되어 대평동마을회에서는 주민복지와 대민봉사를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쳐 나갔습니다. 복조리 장사, 일일 다방운영으로 기금을 조성해 대평초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대평동 부녀회를 중심으로 불우이웃 돋기대바자회^④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미 1962년 마을부지에 목조로 만든 시장건물이 있었는데, 1988년에 당시 박대수 전 대평동마을회장의 주도로 시장을 개축하여 그 결과 점포 13곳이 20여 곳으로 늘어나 마을 재정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재정으로 각 가정에 문패를 만들어주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해주는가 하면 주소록과 전화번호책을 발간하고 구 대평동사 2층에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6월에는 그동안 적립한 마을 기금을 주민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집윤 노인회장님의 조언 하에 마을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가정에 가장 필요한 백미 10kg씩을 대평동 전 세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평동마을회에서는 마을공동재산을 밀거름으로 주민 복지를 위해 큰 힘을 쏟았습니다.

1990년대는 대평동마을회의 활동과 마을 주민들의 호응이 가장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대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민체육대회를 연례행사로 개최하였는데 매번 1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해 친목을 다렸습니다. 매년 정월대보름이 되면 사물놀이페와 대평동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마을에 복운이 있길 기원하는 길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마을활동은 IMF가 불어 닥친 1997년부터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6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평동에는 신문지면 한 장만으로 요약할 수 없는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동안 대평동마을회에서는 끊임없이 마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특정 누군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보다 마을 전체에 이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온 선대 개발위원회원 및 마을운영위원회분들이 있어 대평동마을회는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며 주민과 함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고민하고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대소사에 의견을 보태고 함께 봉사를 통해 성원과 헌신을 보내준 마을 주민 분들 또한 오늘의 대평동마을회를 있게 한 ‘일등 공신’일 것입니다.

글·김동진 편집위원

자문·이집윤 전 대평동장, 박대수 전 대평동마을회 회장, 이영완 현 대평동마을회 회장, 박영오 현 대평동마을회 부회장, 박기영 현 대평동마을회 총무, 그 외 마을 주민분들



사진 ① 대평동마을회관



사진 ② 대평동마을회 운영위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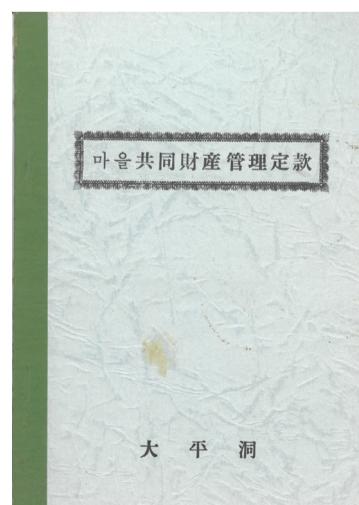


사진 ③ 마을공동재산관리정관 표지
(사진제공·이집윤 대평동 노인회장님)



사진 ④ 1983년 불우이웃돕기 대바자회(사진제공·이집윤 대평동 노인회장님)

동네 속의 작은 동네, 대평동 이북동네 이야기 2

* 12월호 「동네 속의 작은 동네, 대평동 이북동네 이야기 1」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녹록지 않은 삶, 강인한 생활력

피난민촌의 삶이 열악한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북동네 생활환경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은 집들, 좁디좁은 집과 골목, 매립지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어 바다에서 물이 넘치기라도 하면 동네가 온통 물난리였고, 흙으로 만든 벽은 비만 오면 젖은 고약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집을 수리하려면 옆에 붙어있던 다른 집의 허락을 받아야했기 때문에 큰 수리는 꿈도 못 꿨다고 합니다. 이득례 어르신은 “그래도 낡고 부서진 걸 두고 볼 수 없어 낮은 천장을 높이고, 세면대를 설치하는 것처럼 소소한 수리를 살면서 수십 번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피난민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권정자 어르신은 “수돗물이 없어 공동수도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으며 살았는데, 수도가 있는 집을 다니며 얻어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은 십 수 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북동네 사람들의 생활력을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권정자 어르신은 외항 선원이던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홀로 6남매를 키웠습니다.

박양단 어르신은 전쟁 때 군 생활을 했던 남편 덕에 보리쌀이며 안남미를 배급 받아 생활하기도 했지만 배급이 끊긴 후에는 40년 넘게 깡깡이질을 하며 4남매를 키웠습니다. 이득례 어르신은 3백원 하던 일당이 4천원이 되던 시절까지 깡깡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이북동네 한 편에서 조선소 근로자들에게 라면과 국수 같은 새참을 팔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3년간 문을 닫기도 했지만 다시 내년부터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돈을 모아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동네를 터전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 젊은 시절 이득례 어르신, 딸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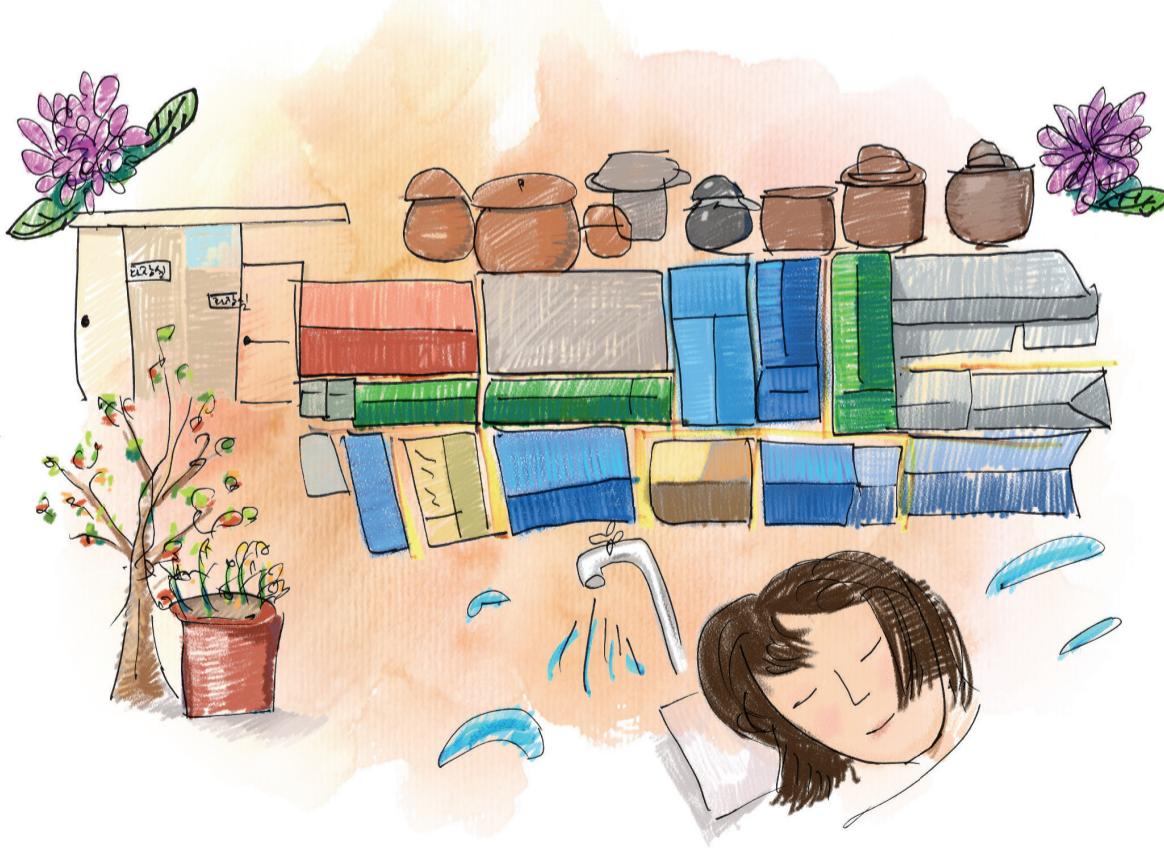
죽기 전에는 떠날 수 없는 나의 동네

대평동 분들에게 이북동네가 어떤 곳인지 물어보면 “비록 허름해보여도 월세도 전세도 아닌 모두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겠지요.

자신이 일군 삶을 긍정하는 모습은 이북동네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난 30년을 떠올리던 이득례 어르신은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라며 “대평동 이북동네는 내게 있어 청춘을 함께한 동네”라고 이야기 합니다. 권정자 어르신 또한 “집은 보잘 것 없고 작아도 내가 살아온 곳이기에 애착이 있어 떠나지 못 한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 시작한 피난살이는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돌이켜본다면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서로 베풀고 도와준 이웃 사람들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고향도 다르지만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살아왔다는 이북동네 사람들. 자식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났지만 이북동네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함께 고생하며 울고 웃던 그 시절의 애환이 동네 곳곳에 녹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글·김수영 객원기자(한국해양대 4)
일러스트·정종우, 하은지



바로 잡습니다.

지난 12월호 1면 기사 중 기업명이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마즈텍 중공업(주) → 마스텍 중공업(주) / STX 중공업 → STX조선(주)
더 정확한 마을신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평동의 거목, 이집운 노인회장님

올해 연세 94세(1924년생). 마을 주민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큰 어른이시자 오늘날 마을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은 바로 이집운 노인회장님입니다. 이집운 노인회장님의 삶을 통해 한 해를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워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마을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평동 마을 분들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해야죠

경로당 벽면에 회장님의 글귀들로 가득합니다. 경로당 당훈도 직접 적어주셨다고 하던데요 당훈인 ‘백인지당, 화의자생’은 어떤 뜻인가요?

‘백번 참는 집안에는 화합하는 마음이 절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경로당은 하던 일도 제각각이고, 성품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경로당 회장을 13년 정도 하다 보니 마을이나 경로당에서 다툼이 있을 때 중재도 많이 했습니다. 경로당 회원분들이 백번 참고 백번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로당 당훈



* 영선1동 동장 시절

노인회장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부산시청 건설국 관리과 공무원이었습니다. 다리 놓고 건물 짓는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처음 저는 건설업자들에게 신청서 작성을 지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시청에서 참 많은 걸 보고 배워 반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뭘 시켜도 해낼 만큼 기백이 있었어요.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영도구에 건설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도

에서 15년 정도 더 일하다가 만 61세가 되어 정년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퇴임 후에는 대평동에 살면서 동장도 하고, 지금은 경로당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대평동에 와서 사신지는 37년 정도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본래 고향은 어디신가요?

저는 경상북도 경주사람입니다. 오래 산 만큼 한평생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농부셨는데 나도 여기 있다가는 농군밖에 안 되겠구나 싶어서 대구사범학교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만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철도원이 되고 싶어서 그 길로 동경 우에노(上章)에 있던 이와꾸라(岩倉) 철도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철도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셨나요?

제가 배운 건 건설파트였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철도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동아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군 비행기가 동경 상공에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더라고요. 여기 있다간 죽겠다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신 후로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도시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공무원 시험을 봐서 영도 영선 1동 동사무소에서 서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쟁피해를 복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부서진 집을 고치고, 미군원조식량을 배급해주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중정트리일

해주고, 미군이 가져다준 옷들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시청에서 관부시험에 있다기에 시험을 봐서 시청으로 발령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함께한 역사의 산증인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평동 주민분들이 회장님께서 마을에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 공동재산을 법적으로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다는 것인데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일본사람이 두고 간 땅을 불하받아 마을에서 대금을 지불해 마을 공동 소유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1980년대에 법적으로 잘 정리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인죠. 서울에 있는 법원에 수차례 다니면서 마을 재산으로 정리를 잘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열심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때 정리해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깡깡이 예술마을 사업으로 탈바꿈해서 주민분들에게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1981년 대평동 동장시절 구 대평동파출소 앞에서 새마을운동 지도를 하고 있는 이집운 현 대평동 노인회장님

태어난 곳은 경주이시고, 젊은 시절은 일본과 부산에서 보내셨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는 대평동에서 보내고 계신데요. 노인회장님에게 대평동은 어떤 곳인가요?

대평동은 노력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곳입니다. 성실함이 힘을 발휘하는 정직한 동네입니다. 여기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평동에는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도 대평동의 이런 기운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넓은 곳을 동경하고, 어떤 순간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오실 수 있으셨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젊을 때는 뭐든 해보자하는 마음이 컸고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우물쭈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보다 ‘지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순간이 흥분되고 즐겁습니다. 대평동 분들은 각자 자신만의 기술과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현업에서 물러나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야 말로 새로운 것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을분들도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툼 없이 살아가는 저만의 비결입니다.



* 지난 9월 7일 문화사랑방에서 강연 중인 이집윤 대평동 노인회장님



대평동 용어 사전

[스크루 프로펠러]



대평동 거리를 걷다보면 대형 선풍기 날개처럼 생긴 커다란 부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평소엔 물속에 잠겨있어 흔히 보기 힘든 장치인 스크루프로펠러(Screw Propeller)입니다. 선박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스크루프로펠러에 대해 알아봅니다.

3~6개의 날개(blade)가 달려있는 스크루프로펠러는 선풍기가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날개를 회전시키면서 물을 뒤쪽으로 밀어내고 그 반동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 뱃전에 ‘외차(外車)’라는 차바퀴를 달아 추진력을 얻는데 사용했지만 스크루프로펠러가 발명된 후 점차 사라졌습니다.

대평동에서 프로펠러를 수리하고 있는 ‘경진스크루’를 가봤습니다. 이미 수리를 마친 프로펠러가 반짝반짝 빛을 내며 올려져있고, 주위에는 높이가 작게는 3미터에서 5미터 이상 되는 프로펠러들이 벽에 기대있습니다. 프로펠러가 오래되거나 이물질에 부딪히면 날개가 깨지거나 부러지곤 하는데 경진스크루에서는 거기에 동일한 재료를 대 서로 용접해서 모자란 부분을 메우는 ‘이음육성’(built-up)을 하거나, 표면의 불순물을 연마하는 작업을 해 다시 새것처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펠러의 재료는 망간-청동이 가장 많이 쓰이나, 오늘날에는 알루미늄-청동도 많이 사용합니다. 오래 사용한 것은 표면이 산화되어 검붉은 빛을 띠지만 산화된 겉면을 연마하고 광을 내주면 다시 본래의 노랑거나 푸르스름한 색을 띠게 됩니다.

마침 프로펠러 하나가 공장으로 들어와 분해되는 중이었습니다. 강성현 이사의 말에 따르면 320톤급 어선에서 떼어온 것인데 배가 오래 돼서 폐선하고 프로펠러만 떼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작업자 4명이 날개 하나씩을 붙잡고 허브(hub) 부분에서 날개를 분리합니다. 배가 오래되었다고 해도 프로펠러는 부러진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4개월 간 바닷물에 있다 보니 따개비 등 불순물이 많이 끼어있는 상태였는데 그라인딩(grinding, 표면을 갈아내는 일)과 폴리싱(polishing, 연마 또는 광내기) 작업을 하고 나면 다시 새것처럼 말끔해집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프로펠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은 항구도시인 부산에서도 몇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윤이 나는, 근사한 조각 작품 같은 프로펠러를 말입니다.

감수·문호성 (선박설계기술사)

대평동에서 벌어진 벽화 작업

글·이종렬



도선장 가는 길

지난 11월 초부터 대평동에서 페인팅시티 월아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벽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명철공 창고와 자갈치 가는 배타는 도선장 길(대평로 46번길)에 자리 잡은 6개 건물 벽면에 색을 칠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12월 15일 목요일에 현장에 가보았을 때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칠을 하지 않은 다른 건물에 비해 너무 튀면 어찌나 했는데 다른 건물과 색감이 조화를 잘 이뤄서 보기 좋았습니다. 60대 남성인 한 주민은 “색을 칠해놓으니 깔끔하고 좋다”고 합니다. 50대 여성인 한 주민은 “좀 더 밝은 색을 썼으면 좋았겠다”고 합니다. 40대이고 공업사를 운영하는 한 분은 “색을 칠해놓으니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건물이 눈에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50대 여성인 한 주민은 “색깔만 아니라 배나 닷 같은 조선소 관련된 그림도 들어가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는 눈이 다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은 아무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좌측 편 전봇대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벽화 건물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명철공 창고

남항동민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지난 12월 23일 저녁, 남항동 국제선용품유통센터 5층에서 남항동이 거둔 한해의 성과를 축하하고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 100여명의 남항동 유관단체원과 자원봉사자가 모인 가운데 ‘남항동민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송년회 참석자는 물론 그날 참여하지 못한 남항동 주민들에게도 2016년은 매우 뜻 깊은 해였습니다. 15년 만에 부활한 남항터울림 지신밟기 행사를 2월 15부터 3일에 걸쳐 성공리에 치른 것을 시작으로, 깡깡이 아지매를 주제로 한 제24회 영도다리축제 시민페레이드에서 대상 수상, 부산시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5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분야에서 깡깡이예술상상마을을 주제로 한 전시로 장려상 수상, 영도구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남항동은 주민자치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정환 남항동장은 “2016년 주민자치분야에 있어서 남항동이 거둔 다양한 성과들은 남항동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한 해 동안 수고한 남항동 주민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용민 남항동주민자치위원장은 “2017년 정유년에도 남항동 각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지역 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신년 인사와 당부를 전했습니다.



글 및 사진·김지현(남항동주민자치센터 주무관)



누리꾼이 인정한 대평동 맛집, 복성만두

복성만두·영도구 대평로34번길 5-8



인터넷에 ‘대평동 맛집’하고 검색하면 꼭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성만두’인데요. 조선소나 공장이 많다보니 주로 정식집이 많은 대평동에 ‘복성만두’는 유일무이한 만두 전문점입니다. 찐만두, 군만두, 물만두 등 직접 손으로 빚은 만두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인아주머니가 추천해주신 만두 백반을 먹어봤습니다.

만둣국 속에 만두는 커다란 완당처럼

생겼는데 만두피나 내용물 모두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만두 소는 육즙이 풍부합니다. (중국식 만두처럼 반달모양인 찐만두 또한 별미입니다) 함께 들어간 야채가 식감을 더 좋게 하고 감칠맛이 나게 해주었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정구지(부추)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만두만큼 마음에 들었던 것은 국물입니다. 뾰얗고 진한 고기 국물에 삶은 소고기 고명과 당면사리까지 들어가 있어 ‘내가

혹시 설렁탕을 시켰나?’ 착각할 정도입니다.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소뼈를 고아 육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뜨끈한 고기국물에 포만감을 주는 만두까지 더해지니 절로 보양이 되는 느낌입니다. 누리꾼들이 인정한 ‘복성만두’에서 손 만두를 넣은 만둣국 한 그릇 어때세요?

*양념이 국물 맛을 흐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진 양념(일명 다대기)’을 따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100세까지 깡깡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상식

최근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맛이 없는 물을 대신해 여러 가지 차를 수시로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옥수수차, 보리차는 물대용으로 수시로 섭취하면 좋지만 이외의 차 종류들은 하루에 1~3잔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물처럼 마시면 오히려 몸에 독소가 된다고 합니다. 차는 물이 아닌 그야 말로 ‘차’로 섭취하세요. 덧붙여 찻물은 정수기물보다는 수돗물이 좋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고 5분 정도 끓인 후 사용하시면 오히려 미네랄이 많아서 몸에 더 좋다고 합니다.

글 및 그림·이춘옥



첫 출항이다

뱃고사 하는 날
아직은 차가운 바다

“무탈하소”
축원의 선기(船旗) 매달고
뱃머리 주억거리며
어떤 파도에도 꺾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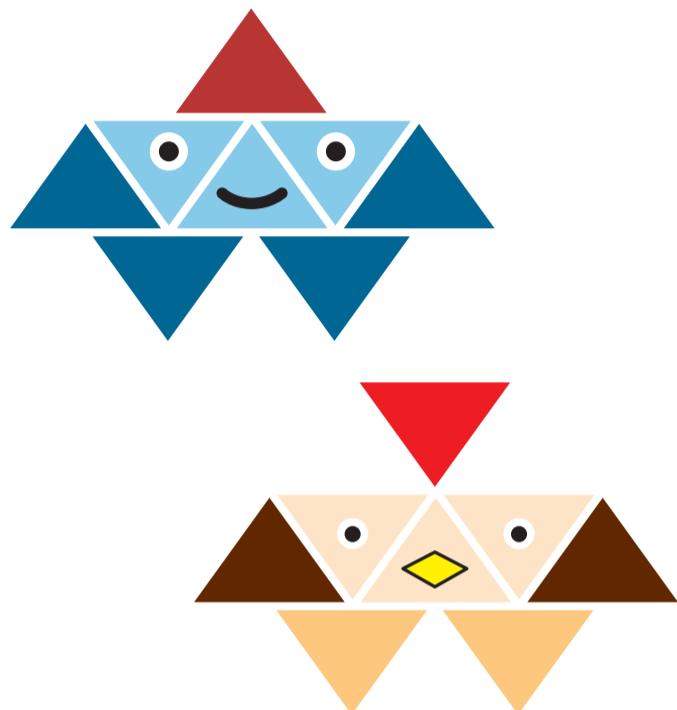
사진제공·조성희(영도국기공장 사장)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소식

깡깡이
예술마을
사업이란?

깡깡이예술마을 사업은 2015년 부산시 예술상상마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도 대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1. 마을캐릭터 '수리' 제작 결과



수리조선마을인 대평동의 특징을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한 캐릭터 제작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평동 캐릭터 ‘수리’는 ‘수리조선’에서 앞에 두 글자를 딴 것으로, ‘선박’의 모습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해체-조립, 조립-해체’를 통해 선박을 수리하는 것처럼 캐릭터 ‘수리’ 또한 다양한 변형,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캐릭터는 가장 먼저 2017년 깡깡이예술마을 달력에 정유년을 상징하는 ‘닭’의 모습으로 변형해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문구 상품, 기념품 등으로 제작 할 예정입니다. ‘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2. 깡깡이예술마을 달력 제작 결과



대화들은 예부터 소리조판마을로 알려진 곳입니다.
산간대기마을로 보이는 대형가로수들이 아름은 이정표 암반을 해주고, 조선시대 문을 사이로 보이는 거대한 선벽이 위용을 자랑하는 빛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보면서 대형가로수들이 아름은 이정표 암반을 해주고, 조선시대 문을 사이로 보이는 거대한 선벽이 위용을 자랑하는 빛입니다.
방마다 벽화들이 사설처럼 2017년 달력을 준비하는 바탕화면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보면서 대형가로수들이 아름은 이정표 암반을 해주고, 조선시대 문을 사이로 보이는 거대한 선벽이 위용을 자랑하는 빛입니다.

| 2016년 12월 일정 | | | | | | | 2017년 1월 일정 | | | | | | |
|-----------------|-----------------|-----------------|-----------------|-----------------|-----------------|------------------|------------------|------------------|------------------|------------------|------------------|------------------|------------------|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27 | 28 | 29 | 3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4일 월 12월 28일 | 5일 화 12월 29일 | 6일 수 12월 30일 | 7일 목 12월 1일 | 8일 금 12월 2일 | 9일 토 12월 3일 | 10일 일 12월 4일 | 11일 월 1월 1일 | 12일 화 1월 2일 | 13일 수 1월 3일 | 14일 목 1월 4일 | 15일 금 1월 5일 | 16일 토 1월 6일 | 17일 일 1월 7일 |
| 4일 월 11월 6일 | 5일 화 11월 7일 | 6일 수 11월 8일 | 7일 목 11월 9일 | 8일 금 11월 10일 | 9일 토 11월 11일 | 10일 일 11월 12일 | 11일 월 11월 13일 | 12일 화 11월 14일 | 13일 수 11월 15일 | 14일 목 11월 16일 | 15일 금 11월 17일 | 16일 토 11월 18일 | 17일 일 11월 19일 |
| 4일 월 11월 11일 | 5일 화 11월 12일 | 6일 수 11월 13일 | 7일 목 11월 14일 | 8일 금 11월 15일 | 9일 토 11월 16일 | 10일 일 11월 17일 | 11일 월 11월 18일 | 12일 화 11월 19일 | 13일 수 11월 20일 | 14일 목 11월 21일 | 15일 금 11월 22일 | 16일 토 11월 23일 | 17일 일 11월 24일 |
| 25일 성탄절 | 26일 | 27일 | 28일 | 29일 | 30일 | 31일 | 26일 월 11월 27일 | 27일 화 11월 28일 | 28일 수 11월 29일 | 29일 목 11월 30일 | 30일 금 12월 1일 | 31일 토 12월 2일 | 1일 일 12월 3일 |

지난 12월 14일 <2017년 깡깡이예술마을 달력>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에서 기획하고 발행한 2017년 달력은 ‘대평동의 하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대평동의 모습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이 달력은 대평동 마을 주민 및 근로자, 부산시 주요 기관 등에 배포되었습니다.

INFO

기자모집

「만사대평」의 주민 기자가 되고 싶은 분은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평소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에 관심 있는 대평동 주민분께서는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대평동을 다녀가신 분의 방문 후기를 받습니다. 긴 글 짧은글 상관없이 후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광고

「만사대평」에서는 생활지면광고를 게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축하, 돌기념, 고희기념, 업체광고 등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소식들을 마을신문을 통해 전해보세요.

- 광고 게재료는 1만원입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영도구 주요 기관 등에 배포됩니다.
 -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